판결·처분으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상속받은 부동산, 어떻게 나눌까요?
한 명이 갖고 돈으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단독 소유·상속인 정산 방식 분할

상속 심판

상속 부동산 분할 · 상속재산분할 심판



법무법인 해율

1. 망 망 각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상대방 단독으로 소유한다.

나. 상대방 청구인에게 117,439,706원, 상대방 65,023,353원, 상대방 110,628,542원, 상대방 65,023,3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본심판과 반심판을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상속인들 사이에 부동산을 나누는 방식이 달랐고, 해율은 부동산을 가질 사람과 정산금을 받을 사람들 측을 함께 대리했습니다. 상속받은 집이나 땅을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면 매각과 관리 때마다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요구한 내용과 법원이 인정한 권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과 별개로 지킬 권리와 부담할 의무를 나누어야 합니다.

해결의 핵심

누가 부동산을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어떻게 정산할지까지 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주장한 내용과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나누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어떻게 나눌까요

단독 소유·상속인 정산 방식 분할. 해율이 함께한 사건의 결과입니다.

- 상속받은 집을 가족과 공동 소유하기 어렵다면
- 형제들이 부동산을 나눠 갖자며 다툰다면
- 한 명이 집을 갖고 다른 가족에게 정산하고 싶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해율이 함께한 결과

법무법인 해율은 상속재산 분할을 다투는 의뢰인들을 대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단독 소유·상속인 정산 방식 분할입니다. 의뢰인의 입장과 실제 판단을 함께 살펴보면, 어떤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어떤 부분을 지켰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달라진 점

소유권을 나누는 것만이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사건에 맞춰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상속인은 부동산을 단독으로 갖되 다른 상속인들에게 돈을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단독 소유를 얻은 사람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도 함께 생겼습니다. 이번 판단이 정한 의무와 실제 이행은 구분됩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준비할 자료와 절차를 정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중요합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단독 소유·상속인 정산 방식 분할. 해율이 함께한 사건의 결과입니다.

- 상속 부동산을 팔지 않고 나눌 방법을 찾는다면
- 가족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식이 다르다면
- 공동 소유로 남으면 관리와 매각이 걱정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